

至尊 위태

광주비엔날레 5대 과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문화컨텐츠인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비엔날레의 선두 주자인 광주비엔날레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반면, 후발 주자인 부산 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은 세

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대회를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계 안팎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환골탈태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년 연륜 이제 정체성 갖춰라

백화점식 전시 답습...총감독 마다 주제 제각각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만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해 세계인들에게 각인된 고유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광주비엔날레가 그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

품을 전시하는 '백화점식' 전시를 답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사가 끝나면 떠나는 예술총감독들의 미학을 표출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자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미술계가 광주를 위한 비엔날레를 할 것인지, 총감독을 위한 비엔날레를 할 것인지 등 정체성과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 비엔날레가 간과한 정체성과 좌표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일깨울 것'이라는 광주비엔날레 창립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설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미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할 시점이다.

전시 노하우, 인적네트워크 구축

막대한 비용 들여 맺은 인적자산 행사 끝나면 소멸

광주비엔날레는 창립 12년이 됐지만 축적된 전시관련 노하우나 자체적으로 해외 작가들을 섭외할 수 있는 세계 미술계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전무하다.

세계 미술인과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미술행사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는 건 미술계의 상식. 그러나 총감독 등이 막대한 해외출장 경비를 지

출해가며 세계 미술인사들과의 맺은 인적자산은 이들이 떠나면서 함께 소멸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올해도 김홍희 총감독을 비롯 해외작가 섭외, 전시참여 등 핵심 업무를 맡은 인력 8명이 행사 종료와 함께 비엔날레를 떠난다. 이에 따라 재단 인력을 핵심 전시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등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조직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조직 재정비를

시립미술관 인력과 통합운영 시너지 효과 거둬야

세계 주요 비엔날레로 꼽히는 베니스나 리옹 비엔날레도 10여명 안팎의 상근 직원으로 행사를 치러낸다. 이들은 정예 인력으로 조직의 활동성을 높이는 한편, 전시 등 핵심업무 외에 홍보와 마케팅 등 부대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김으로써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다.

반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도 공무원 15명을 비롯 재단직원 27명 등

모두 49명이 상근하는 거대조직임에도 효율성 면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미술전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립미술관 인력 30여명은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 활용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두 조직의 인력과 조직을 통합운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지역작가 참여 늘려라

이해도 높이고 자긍심 심어주는 프로그램 절실

비엔날레를 6회째 개최한 도시로서 지역 스타작가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회에 참가했던 한 지역 작가는 작품 제작 지원금 한푼 받지 못한 채 수천

만원의 들어 작품을 제작한 뒤 빚더미에 나왔기도 했다. 중국은 상하이 비엔날레, 베이징아트 페어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위에 민권, 장사오강 등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작가

들을 배출했으며, 요코하마 비엔날레에서 뜨는 일본 작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관람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호객성' 축제 프로그램에 치중, 광주 시민은 물론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비엔날레 개최 때는 물론 공백기에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경제 기여방안 찾아라

관광지 연계 관광수입 창출 등 개최 효과 거둬야

베니스 비엔날레는 베니스라는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상하이 비엔날레도 역시 관람객을 흡인할 수 있는 뛰어난 관광지의 이점을 십분 살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머물게할 관광 인프라가 거의 없는 광주는 비엔날레를 12년째 개최해오고 있지만 비엔날레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비엔날레 기간

동안 80억~100억원을 비엔날레 행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관광수입 창출 등 대회 유치 효과를 지역경제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 총장로 축제를 비롯 광양 전야축제, 목포사랑 은빛갈치 축제, 곡성 심청축제 등 주요 축제가 열리지만 비엔날레와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관람객 공공축제의 場

예산 광주의 절반... 시내 전역이 전시장

16일 개막한 부산비엔날레는

'어디서나(every where)'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부산비엔날레는 시내 곳곳에서 미술을 만날 수 있는 부산 시민들의 축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시관 중심으로 관람 환경을 좁혀 시민들의 관심 밖

으로 밀려난 반면, 부산은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미술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공축제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대학교 인근 장전동 온천천을 비롯 해운대 해수욕장, 수영만 요트장 등 시내 곳곳에서 비엔날레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의 역량도 돋보였다. 비엔날레 조직위의 상근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7명. 이들은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산(9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억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시내 관공동선을 따라 관람객들에게 전시장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비엔날레 개최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려는 주최측의 의도도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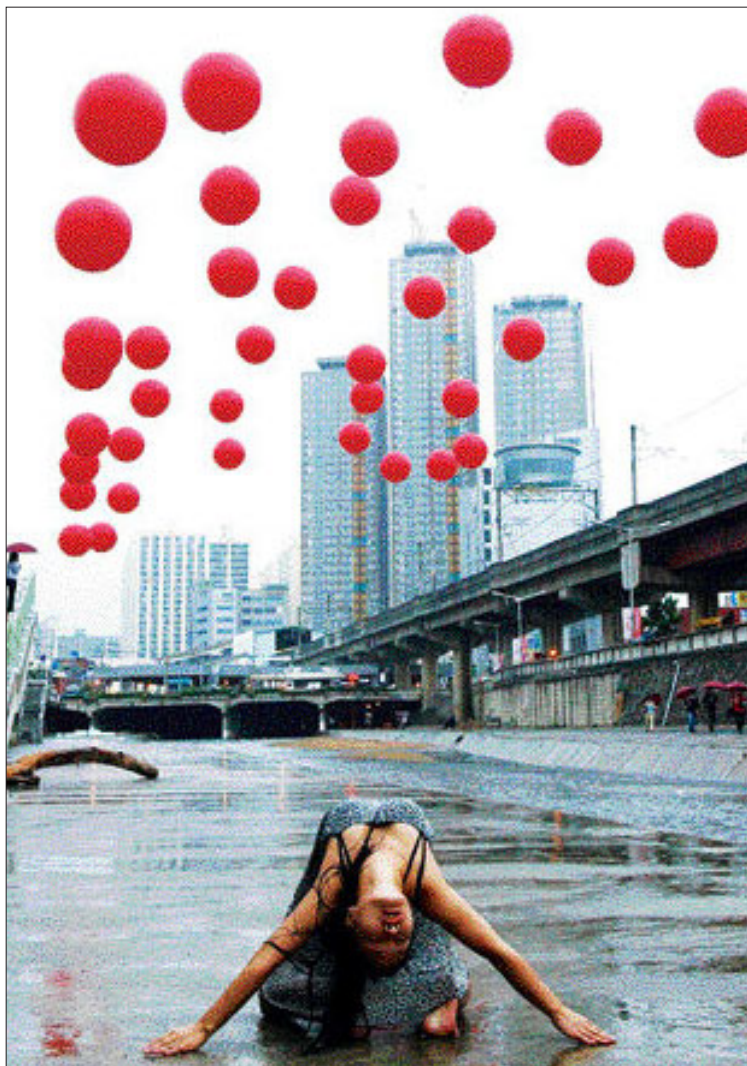
'퍼블릭 퍼니처(Public Furniture)'를 주제로 열리는 '바다 미술제'에서는 조각, 설치작품을 비롯 32점 작품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관람객을 만났다.

부산대학교 뒤편 하천인 온천천에서 열린 '카페3'는 시민들에게 참여작가가 커피를 나눠주는 이동식 찻집인 '카스코 모빌'을 비롯 학생들이 미술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구르는 학교' 등 13개국 23점의 체험형 작품들이 전시됐다.

본 전시가 열리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교과서형' 전시라는 평가를 받는 광주비엔날레와 달리 매주 병 8천개를 이용한 설치작품인 작가 호노레 도(벨기에)의 '미지로의 여행'을 비롯 실험성 높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황해진 부산비엔날레 홍보팀장은 "인원이 많은 광주비엔날레가 부럽기도 하지만 현재 인원외에 3명만 더 있어도 훌륭하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게 광주비엔날레에 비해 부족하지만 일당 백이라는 각오로 직원들이 뛰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6부산비엔날레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부산시 장전동 온천천에서 행운 예술가 김숙진씨가 작품 '날오는 지형도'를 배경으로 즉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하이, 10년만에 세계가 주목

지난 1996년 창설된 상하이 비엔날레는 창설 10년 만에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로 급성장했다.

'2006 상하이 비엔날레'(9월5일~11월5일)는 '하이퍼 디자인'을 주제로 상하이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세계 28개국 130여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전시는 '디자인과 상상', '일상 생활 실천', '미래 역사 구축' 등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현대인이 생활과 예술 속에서 만나는 디자인을 다루고 있다. 상하이의 상하이 미술관이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현대 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대거 참가시켰다.

싱가포르, 20미술허브 목표 올 출범

싱가포르 비엔날레는 '아시아 미술의 허브'를 목표로 올해 첫 출범했다.

제1회 대회(9월4일~11월12일)는 '믿음(Belief)'을 주제로 세계 38개국 95명의 작가와 작가 그룹이 참가했다.

건축, 생명공학, 드로잉, 설치, 뉴 미디어 회화, 퍼포먼스,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작가들이 현대 사회의 믿음의 문제를 조명한다. 전용 전시장을 만들지 않고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원과 공공장소에서 전시를 여는 것이 특징이다. 시청 건물과 병영이었던 '탱린캠프', '오차드거리' 등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곡성 시민칭축제 2006

가평리 산채마을 상복마을이기

2006.9.28(목)~10.1(일) 3일간 9:00~18:00

심정길 자연생태공원